

濟州市議會會議錄

第 19 回

開會式
濟州市議會

日 時：西紀 1958年 12月 1日 上午 10時 40分

場 所：濟州市議會 議事堂

第 19 次 濟州市議會 開會式 節次

1. 開 式
2. 國民儀禮
3. 式 辭(議長)
4. 祝 辭(省略)
5. 萬歲三唱
6. 閉 式

〈式辭要旨〉

오늘 12月 1日 定期議會를 맞이하여 開會式을 舉行함에 있어서 議員同志 여러분과 함께 過去 1年間の 業績을 想起하고 今會期中에 있어서 圓滑하고 隔意없는 議事가 進行되어 크나 큰 業績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 마지 않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데 國內外 情勢가 錯雜 微妙한 가운데 特히 國會에서는 國家保安法案審議를 圍繞하여 與野間의 深刻한 鬭爭이 展開되어 國民의 注視裡에 있는 緊張된 政局에 處하여있는 現實인 것입니다.

이러한 重大한 時期에 있어서 우

리들 地方議會로서 現 時局의 情勢를 正確히 洞察하여 民心啓導에 注力하여야 함은 再言을 要치 않는 바이며 나아가서 우리 議員의 本來의 職責 完遂에 精誠을 다하여야 하겠 습니다.

議員 同志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 시피 本 會期中에는 市民의 1年間の 살림살이를 마련하게 되는 西紀 1959年度 一般會計豫算案을 爲始하여 教育委員會特別會計 再建住宅特別會計等 重要 案件의 審議와 아울러 過去 1年間の 豫算執行狀況 그리고 市政 全般에 걸쳐 敏速 正確한

再檢討를 加하여 是와 非를 正確 分明히 하므로써 우리들의 職責을 다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如斯한 本會期의 重大性을 느낌으로 해서 11月 27日 常任委員會議를 開催하고 27日間을 定하여 議事進行 計劃案을 決定하여 各議員님에게 配付한 바입니다. 아무쪼록 本會期中에 있어서 諸案件 審議에 慎重과 敏速을 期하여 所期의 業績을 舉揚할 것을 祈願하면서 簡略히 式辭에 가름하는 바입니다.